

# 패전 직후의 일본의 사회문화상\*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후기작품을 중심으로—

김 경 숙\*\*

(e-mail : k87sook@daum.net)

## < 목 차 >

1. 들어가기
2. '무책임의 체계'
3. 환기되는 죄의식
4. '배급된 자유'에 대한 저항
5. 새로운 시대의 문화인-윤리적 주체성
6. 나가기

キーワード : 文化人(Cultured man), 天皇(The emperor), 罪意識(Feeling of guilt), 主体性(Independence), 自由(Freedom), 戦争責任(War responsibility)

## 1. 들어가기

파란만장한 역사를 공유하는 한일관계는 1965년에 이루어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도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정치, 외교상의 갈등과 대립으로 악화를 거듭해왔다. 이러한 오늘날의 부정적인 한일관계를 조성하면서 동아시아 통합에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인들의 잘 못된 역사인식과 과거사청산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은 현대의 일본사회의 기점인 패전 직후의 사회를 재조명함으로써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패전 직후의 사회상을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1909~1948)의 후기작품(1945~1948)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5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783)

\*\* 덕성여자대학교, 시간강사, 일본근현대문학

다자이는 일본의 근현대문학의 대표작가로서 자신의 세계, 자신의 신변, 즉 ‘사(私)’적인 세계를 그려온 일본 특유의 사소설(私小説)작가로 간주되는 경우<sup>1)</sup>가 종종 있으나 그의 ‘사(私)’적인 세계가 끊임없이 정치적, 사회적인 제반 문제들과 관련하여 ‘공(公)’적인 세계와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중에 쓰인 그의 중기작품들 중에는 전시체제의 정책과 추이, 문단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파악하면서 전쟁정책과 전시이데올로기를 다양한 수법으로 비판한 작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sup>2)</sup> 청년시절 사회주의 사상과도 접한 적인 있는 다자이는 문학에 대한 정치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예술론에 반발하여 문학일변의 길을 걷게 되지만 이 청년기에 형성된 비판정신과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각은 전쟁 중뿐만 아니라 전후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작품을 통해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특히 그의 패전 직후의 작품에는 근대의 종말과 현대의 시작이라는 변혁기를 맞은 일본의 혼란스러운 사회상과 전쟁 및 전쟁책임, GHQ(연합군 총사령부)의 정책 등에 대한 일본인들의 의식과 행동들이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당시의 가장 첨예한 이슈였던 이러한 문제들이 다자이의 문학작품에 어떻게 그려지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주체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이러한 문제들을 앞에 두고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 동시대의 담론들을 참조하

1) 예를 들어, 다자이는 “스스로의 체험이나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소설 작가”로서 “국가나 국책과 대치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전쟁터도 전쟁도 몰랐기 때문에 전쟁소설이나 중군기도 안 썼다고 하기보다는 쓸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쓰즈키 히사요시(都築久義(2000) 『戦時下の太宰治—「十二月八日」をめぐって—』 『太宰治研究』 8, 和泉書院, p.2)의 견해, 다자이를 “정치로부터 도피함으로써 예술을 성립시킨, 일본적인, 너무나도 일본적인 사소설 작가 성향의 그 전형”이라고 지적하는 다카기 도모코(高木知子(1983) 『太宰治—抵抗か屈服か』 『戦争と文学者』 三一書房, p.183)의 주장 등.

2) 예를 들어, 작품 『피부와 마음(皮膚と心)』(1939.11)에서는 전시체제의 중심 이념인 모성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며 현모양처상과 상반되는 언동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여주인공을 등장시킴으로써 전시체제하의 억압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였고 『갈매기(鷗)』(1940.1)에서는 전쟁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우생운동’이 펼쳐지는 시대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 ‘약자’를 자칭하는 자기상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열등’자에 대한 배제라는 전시체제의 지배적 가치관에 거부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전시체제를 지탱하는 ‘공(公)’의 논리가 지배적인 질서를 형성하고 ‘사소설’작가라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아야 했던 시대에 대항하여 작가자신의 감각을 중요시하는 인물을 『풍문(風の便り)』(1941.11)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오히려 ‘사(私)’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문학가로서의 주체성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여치(ちぎりす)』(1940.11)에서는 전체주의로의 국민정신의 통일을 골자로 하는 ‘신체제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는 시기에 오히려 개인주의,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갖은 여주인공을 등장시켜 시류에 추종하는 그의 남편을 비판하게 함으로써 작가자신의 전시체제와의 거리감을 표출하였다.

며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패전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대의 주요문제들을 문학 작품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사회상의 일면을 보다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 ‘무책임의 체계’

패전 직후인 1945년 9월 5일, 히가시쿠니노미야(東久迺宮)내각은 ‘일억총참회(一億総懺悔)’론을 내세워 패전의 책임을 일본국민에게 전가하며 국민의 자숙과 반성을 요청하였다. 이듬해인 1946년에는 군사법정인 극동국제군사재판(일명 도쿄재판)의 공판과 함께 전쟁지도자의 개전책임이 쟁점화 되면서 GHQ에 의한 ‘전쟁범죄 용의자 체포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동조하는 좌익진형은 국민에게 피해를 준 국가와 천황을 포함한 지도자의 책임을 정치적으로 철저히 추궁해 갔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책임’이라는 용어가 국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당시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패전에 대한 참회를 강요받던 일본국민들은 한순간에 정부와 군부지도자들에 의한 전쟁 피해자로 그 위치가 바뀌게 된 것이다. 결국 군사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일부 지도자들에게만 주로 전쟁책임이 집중되었고 천황을 포함한 그 외의 일본인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지워지지 않았다.<sup>3)</sup>

이러한 패전 직후의 전쟁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사상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중국침략에 대해서 일본국민들은 “공동책임”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일본 내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국민의 정치적 책임은 가벼울지 모르나 “파시즘 지배에 묵종한 도의적 책임”까지 면제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밝힌다.<sup>4)</sup> 또한 독일의 나치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당시 일본에서는 “스스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을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무책임의 체계’<sup>5)</sup>를 지적하고 패전 직후의 일본사회

3) 朝日新聞「検証・昭和報道」取材班(2013)『新聞と「昭和」上』、朝日新聞出版、pp.342-344에 의하면 1948년 11월 12일, 도쿄재판의 법정에서 東条英機 등의 7명에게 교수형이, 木戸幸一 등의 18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졌고 12월 23일에 처형되었다. 그리고 24일 A급전범용의자 17인의 석방이 발표되었다.

4) 김석근 역(2011) 「전쟁책임론의 맹점」 『전중과 전후사이』, 휴머니스트, p.610

5) 김석근 역(1997)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p.28

가 해결하지 못했던 전쟁책임 문제를 끊임없이 환기시키며 전후사회에서의 전쟁책임에 관한 담론들을 이끌어 간다. 패전 직후, 전쟁책임을 지려는 주체가 없었다는 마루야마의 지적은 문학평론가 가와카미 데쓰타로(河上徹太郎)의 말을 빌리자면 패전은 “자연재해의 일종”과 같은 것으로 피해자는 있지만 그에 대한 가해자를 추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일본국민들의 정서가 있었던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sup>6)</sup>

당시 GHQ가 전쟁책임을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며 ‘존황양이의 대정신’을 내걸고 동조한 전쟁이 ‘성전(聖戰)’이 아니라 침략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한 국민의 ‘재교육’이 필요했다. 이에 GHQ의 ‘민간정보교육국(CIE)’은 태평양전쟁 발발일인 12월 8일에 전국 신문지에 각각 2페이지의 지면을 할애해 17일까지 10회에 걸쳐 ‘태평양전쟁사’를 게재하게 했다. 그동안 일본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전쟁의 경위와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전쟁범죄 및 전쟁책임, 원자폭탄 투하에 관한 내용, 점령군의 목적에 관한 내용들이었다.<sup>7)</sup>

특히 전쟁책임에 관련하여 천황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으킨 일련의 침략전쟁과 패전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천황의 ‘무조건항복’ 선언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자 많은 국민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천황만세를 외쳤고 패전이 자신들의 ‘불충’ 때문이라며 용서를 빌었다.<sup>8)</sup> 앞서 말한 CIE의 대대적인 일본인의 ‘재교육’에도 불구하고 천황에 대한 책임 추궁의 주장은 좌익진영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만 일어났을 뿐이다. 실제로 전쟁 상대국이었던 미국 내에서 전쟁책임을 물어 천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당시의 여론은 66%였던 것<sup>9)</sup>에 반해, 일본 내에서는 천황제 존속지지가 90.3%, 쇼와천황 재위지지가 68.5%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천황과 천황제를 지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천황자신은 측근인 기도 고이치(木戸幸一)에게 “전쟁책임자를 연합국에게 인도하는 것은 실로 고통스럽고 참기 힘든 일이라며 스스로 퇴위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는 없는 가?”라고 물었고 이에 기도 고이치는 그렇게 되면 “일본을 공화제로 하자는 논의가 일

6) 河上徹太郎(1945) 「配給された自由」 『戦後日本思想大系1-戦後思想の出發』 (1971)、筑摩書房、p.77

7) 전개서, 朝日新聞 「検証・昭和報道」 取材斑(2013) pp.299-300

8) 전개서, 朝日新聞 「検証・昭和報道」 取材斑(2013) pp.250-251

9) 전개서, 朝日新聞 「検証・昭和報道」 取材斑(2013) p.321

10) 전개서, 朝日新聞 「検証・昭和報道」 取材斑(2013) p.340

어날 수 있다”며 말렸다고 한다.<sup>11)</sup> 결국 천황과 그 측근들은 천황제의 체제유지를 위해 천황의 퇴위라고 하는 최소한의 전쟁책임조차도 회피한 것이다.

한편 당시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인 맥아더는 1946년 1월, 미국군 참모총장인 아이젠하워에게 천황을 전범으로 재판에 넘기면 일본에 폭동이 일어나 ‘백만의 군대’가 필요해질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결국 천황을 전쟁범죄인 기소에서 면죄시키기로 한다.<sup>12)</sup> 물론 당시의 아사히신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군국주의 자에게 천황제가 악용된 것에 대해 천황이 전쟁책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일본국민들은 천황에게 전쟁책임을 물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천황은 전쟁의 희생자들을 격려하고 싶다며 전국시찰을 다녔고 국민들은 전몰자 유족들에게 조차도 직접적으로 사죄를 언급한 적이 없는 천황을 눈물과 만세로 맞이하였다고 한다.<sup>13)</sup>

이리하여 전쟁의 비운을 마치 ‘자연재해의 일종’처럼 받아들이며 서로를 위로하는 것으로 천황과 전쟁에 동조한 국민들의 ‘도의적 책임’은 무마되어버린다. 이는 마루야마의 지적대로 천황 그 자체가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비정치적 혹은 정치를 초월하는 존재”<sup>14)</sup>처럼 표상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의 연합군은 일본인들이 천황의 옥음 방송만으로 모두 조용히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조심스럽게 민의를 살피고 있었다고 한다.<sup>15)</sup> 또한 이러한 일본국민들의 행동에는 침략전쟁과 전쟁책임에 대한 일본인 재교육이 전쟁의 적대국이었던 미군의 무력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다는 사실, 즉 전쟁책임을 옹고 그릇을 판단하기 이전의 감정적인 거부감도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처럼 자국의 희생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조차도 꺼리는 당시의 일본인들에게 아시아민족에 대한 ‘공동책임’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지도 모르겠다. 결국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범자나 천황, 일본국민들, 그리고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선동한 미디어들조차도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낸 것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문제화하는 일은 없었다.

11) 전게서, 朝日新聞 「檢証・昭和報道」取材班(2013) p.320  
 12) 전게서, 朝日新聞 「檢証・昭和報道」取材班(2013) p.329  
 13) 전게서, 朝日新聞 「檢証・昭和報道」取材班(2013) pp.335-336  
 14) 전게서, 「전쟁책임론의 맹점」, 김석근 역(2011) p.612  
 15) 전게서, 朝日新聞 「檢証・昭和報道」取材班(2013) p.307

### 3. 환기되는 죄의식

패전 직후 다자이의 후기작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죄의식’의 문제는 다자이문학의 키워드이자 중심주제였던 만큼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오쿠노 다케오(奥野健男)는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죄의식”<sup>16)</sup> 라고 보고 있으며 소마 쇼이치(相馬正一)는 다자이의 “집안에 대한 죄의식”<sup>17)</sup> 을 지적하고 있고 안도 히로시(安藤宏)는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한 문학적인 가공”<sup>18)</sup>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아에바 다카오(饗庭孝男) 등에 의해서 기독교의 영향설이 지적되어 왔으나 이러한 논거들은 모두 당시의 다자이의 작품들이 품고 있는 시대성, 사회성에 대한 시점이 결여되어 있다.

원폭 투하에 의한 ‘무조건 항복’이 선언된 직후인 1945년 10월 1일, GHQ에 의해 5대개혁지령이 내려지고 이어서 재벌해체, 황실재산의 동결, 황실을 포함한 전쟁용의자 체포명령, 농지개혁 등의 민주화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민주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갔다. 이에 전쟁 중 전시체제의 억압과 구속 속에서 전쟁에 동조하거나 침묵해 온 좌익진영은 GHQ의 민주화 정책에 편승하면서 신일본문학회, 부인민주클럽 등의 단체를 만들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갔고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문화주의, 개인주의 등 서양의 사상들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sup>19)</sup> 다자이는 이러한 흐름을 “신형 편승주의”라고 비판하며 무력중심의 시대에서 문화중심의 시대로 바뀐 사회에 대해 1946년에 발표한 작품 『15년간(十五年間)』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와 우려를 표명한다.<sup>20)</sup>

새로운 현실

완전히 새로운 현실. 아아, 이것을 더욱 더 높이 힘차게 말하고 싶다!

그곳으로부터 도망가서는 안 된다. 거짓으로 꾸며서는 안 된다.

쉽지 않은 고통이다. 며칠 전에 어느 청년이 나를 찾아와 식량부족의 우울함을 이야기했다. 나는 말했다.

16) 奥野健男(1984) 『太宰治論』、新潮社、p.62

17) 相馬正一(1991) 『増補若き日の太宰治』、津軽書房、p.233

18) 安藤宏(1991) 「太宰文学における「罪」の生成」 『日本近代文学』第44集、日本近代文学会、p.110

19) 山崎正純(2002) 「『斜陽』—敗戦後思想と〈革命〉のエスキス」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2002.12),学灯社, pp.90-91

20) 이하, 다자이 작품의 인용은 『太宰治全集』(1989, ちくま文庫)에 의거함.

“거짓말. 너의 우울은 식량부족보다 도덕의 번민 아닌가.”

청년은 수긍했다.

우리들이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일, 가장 떳떳하지 못한 것, 그것을  
지금 일본의 “신문화”는 그냥 지나치며 앞으로만 달려갈 것 같다.

(전집8, pp.241-242)

‘식량부족’이라는 물질적 측면이 아니라 ‘도덕의 번민’, 즉 정신의 문제라는 것인데 그 정신의 내용은 자신들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일’, ‘가장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며 당시의 새로운 문화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의 번민’은 이후의 작품에서도 계속해서 문제화 되어 이른바 ‘죄의식’이라는 다자이문학의 키워드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후기작품의 대표작인 『비욘의 아내(ヴィヨンの妻)』(1947.3)에서 “언제나 공포와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 ‘남편’을 지켜보면서 부인인 ‘나’는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에 드나드는 손님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범죄자들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 모두가 뭔가 반드시 떳떳하지 못한 죄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오상(おさん)』(1947.10)에서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남편’이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고 말하자 부인인 ‘나’는 ‘떳떳하지 못한 것’에 모두가 “둔감”한 것뿐이라고 답한다. 즉, 두 작품 모두 죄를 인식해야 하는 것은 남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어진 민주주의에 춤을 추는 민중이 전시에는 예외 없이 ‘자유주의 박멸’의 슬로건에 동화해갔던 사실”<sup>21)</sup>에 대한 작가의 예리한 비판의식을 읽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일’, ‘가장 떳떳하지 못한 것’, 즉 “예외 없이 ‘자유주의 박멸’의 슬로건에 동화해갔던” 일본국민 모두가 가져야 할 책임감과 ‘죄의식’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을까? 일본이 천황의 이름으로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린 사망자의 수는 일본국내인만 해도 310만 명이 넘는다.<sup>22)</sup> 전전(戰前), 전중(戰中)과의 단절과 민주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외쳐지는 가운데, ‘성전’임을 믿고 감수했던 전쟁이 침략전쟁으로 밝혀지고 부정

21) 전개서, 山崎正純(2002) p.92

22) 加藤典洋(1997) 『敗戦後論』、筑摩書房、p.120.

됨으로써 그들의 죽음이 무의미한 것으로 잊혀져가는 현실. 이 현실을 다자이는 문학가의 예리한 눈과 감성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현실로부터 ‘도망가서’도 안 되고, ‘거짓으로 꾸며서’도 안 되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 만’ 자신들은 그들 즉 자신의 ‘이웃들’을 희생시킨 죄인이라는 인식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의 다자이문학의 과제였던 것이다.

이는 같은 시기에 창작된 다른 여러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47년 1월에 발표된 『메리크리스마스(メリクリスマス)』는 히로시마원폭에 의해 희생된 친구를 기리는 내용의 작품이고 이에 앞서 1946년 5월에 발표된 『미귀환의 친구에게(未帰還の友に)』는 전쟁터에서 죽은 제자에 대한 미안함과 애절함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의 “제국주의의 침략이라든지 뭐라든지 하는 이유에서가 아니더라도 나는 본능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군대가 싫었다.”는 표현에서는 자신들의 전쟁이 침략전쟁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애써 문제화하지 않으려는 심리를 읽을 수 있다. 여기에는 ‘침략’에 무게를 두면 들수록 자국의 희생자들의 죽음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작품의 마지막부분에서 제자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여겨왔던 주인공 ‘나’는 미귀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전부가 건강하게 귀환하지 않으면(중략) 나만 살아남아 술을 마시고 있어봤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나는 이제 술을 그만둘지도 모르겠다.”(전집8, p.265)라며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전술한 「전쟁책임의 맹점」에서 “‘어제’의 사악한 지배자를 맞이한 것에 대해 쉽게 용서받은 국민으로부터는 ‘내일’의 사악한 지배자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국민이 스스로의 책임을 의식한다는 점이 정치적 자유에 대한 깨달음을 알리는 첫 번째의 징조이다.”<sup>23)</sup>라고 지적한다. 전쟁책임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자신들은 단지 GHQ에 의해 처벌받는 일부 정치지도자들에 의한 피해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 즉 잘못된 전쟁에 대한 자신들의 추종과 묵인으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책임감과 죄의식이 없는 한 마루야마가 지적하듯 잘못된 지배에 대한 저항, 정치적 자유에 대한 각성은 기대할 수 없다. 『15년간』의 주인공이 소리 높여 외치고 싶다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은 전시체제에 꼭두각시처럼 끌려 다녔던 전쟁시대를

23) 전게서, 「전쟁책임론의 맹점」, 김석근 역(2011) p.610

반성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당시의 다자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 4. ‘배급된 자유’에 대한 저항

일본의 전후사회와 전전·전중사회와의 단절 즉, 두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천황’이라는 존재의 의미의 변화일 것이다. 패전 직후 ‘천황’의 신적인 존재로부터 인간으로의 전락을 당시의 일본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리고 자신들이 동조한 전쟁의 패배와 전쟁 상대국이었던 미국에 의해 부여된 전후 민주주의체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패전 직후 GHQ에 의한 민주화 개혁정책과 더불어 천황에 대한 규탄과 전쟁책임자에 대한 추궁이 펼쳐지는 가운데 다자이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천황각하만세’를 외치며 ‘보수파’를 자칭한다.

“용기 있는 진정한 자유주의사상가라면 지금이야 말로 무엇보다도 외쳐야 할 것이 있다. 천황각하 만세! 이 외침이다. 어제까지는 낡은 것이었다. 아니 낡은 것이라기보다는 사기였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새로운 자유사상이다.” (중략)미국은 자유의 나라라고 들었다. 반드시 일본의 이 진정한 자유의 외침을 인정해줄 것임에 틀림이 없다.

(『15년간』, 전집8, pp.245-246)

천황의 험담을 하는 자들이 급격하게 늘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보니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깊이 천황을 사랑해 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보수파를 친구들에게 선언했다.(『고뇌의 연감(苦惱の年鑑)』 1946.6, 전집8, p.279)

이처럼 천황을 지지하는 표현은 작품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적인 서간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

지금 가장 용기 있는 태도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중략)나는 이번에는 사회주의자하고도 싸울 작정. 설마 반동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라도 천황

만세로 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사상.<sup>24)</sup>

패전 전까지 천황을 거론한 적도 없고 오히려 전시체제의 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던 다자이가 시대에 역류하듯이 이 시기에 ‘천황’을 거론하고 ‘보수파’를 자칭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sup>25)</sup>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당시의 문단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전 선언 직후인 1945년 10월, 가와카미는 GHQ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 펼쳐지는 자유화, 민주화의 운동에 저항하듯 「배급된 ‘자유(配給された「自由」)」라는 평론을 발표한다. 그는 “굶주린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양식이 배급”되었지만 ‘배급품’으로 부여된 이 “자유라는 깃발아래 공동전선을 구축”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힌다.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자유주의적 문화주의’는 국제사회에나 걸 맞는 것으로 일본사회에서는 ‘형식만 갖춘 정치의 대용품’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치적으로 “오로지 전쟁책임자에 대한 히스테리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언론의 자유라면 민의는 반드시 언론의 자유 속에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손발을 뻗힌 우리나라의 유일의 희망은 문화”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화의 자유라는 것은 구속 받지 않는 비평정신을 갖는 것 외에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인은 일단 사회에 대한 입장이나 정치적인 진영을 떠나 자신에게 돌아가 재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26)</sup>

가와카미는 GHQ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자유주의적 문화주의’는 전시 중에 전시체제로부터 강요받았던 전체주의에서 내용만 바뀐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전시 때처럼 또 다시 정치적인 시대의 흐름에 비주체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가와카미의 주장은 당시 민주화의 흐름에 동조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던 좌익진영의 맹렬한 비판을 받게

24) 『太宰治全集12』(1999) 「小田巖夫宛(1946/1/28)」, 筑摩書房, p.346

25) 이점에 대해 사토 다카유키(佐藤隆之)는 “어디까지나 전시 중에 침묵하거나 군부에 협력했던 좌익사상가들이 전후가 되자 신시대의 기운에 편승해 자신의 주장을 외치는 풍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점만을 들어 다자이를 천황주의자라고 정하는 것은 완전한 잘못이다”라고 지적한다.(佐藤隆之(1993) 「昭和二十年」 『国文学解釈と鑑賞』, 至文堂, 1993.6, p.110)

26) 전개서, 「配給された「自由」」 『戦後日本思想大系1、戦後思想の出發』, p.78

된다. 예를 들어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는 평론 「겨울로 들어간다(冬に入る)」(1947.1)에서 가와카미의 ‘배급된 자유’라는 표현은 “자유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국민은 주어진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국민은 주어진 민주주의의 실마리를 소중한 것으로 귀중히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sup>27)</sup>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불충분하다는 점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쟁책임자에 대한 본질적 비판”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나카노는 자유와 민주가 배급된 것이고 국민의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전쟁책임자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그 부족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sup>28)</sup>

이러한 자유사상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자이는 패전 직후 제일 먼저 집필한 『판도라의 상자(パンドラの匣)』(1945.10)에서 자유주의에 대해 “억압과 속박이 사라진 곳에 처음으로 싹트는 사상이 아니고 억압과 속박의 반작용으로서 그것들과 동시에 발생하여 투쟁해야 하는 성질의 사상”이라는 견해를 밝힌다. 즉 자유사상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혹은 그것이 표출되기 위해서는 “억압과 속박”의 공존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참고로 앞서 언급한 『15년간』의 인용문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지금’, 자신들 스스로의 ‘자유주의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외쳐야 할 것은 ‘천황각하 만세’이고 이 자유주의사상의 존립에 필요한 ‘억압과 속박’은 다름 아닌 천황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 즉 점령군이 되는 것이다.

졌다 졌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멸망해 버린 거야. 일본

27) 中野重治(1947) 「冬に入る」 『戦後日本思想大系1、戦後思想の出發』(1971)、筑摩書房、p.83

28) 가와카미와 나카노가 설정한 전쟁책임자 처벌문제에 대해 다자이는 “일본인은 모두 전쟁에 협력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맥아더 총사령부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일억일십 모두 감옥에 들어갈 것을 희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太宰治全集12』(1999)「井伏鱒二宛(1946/1/25)」、p.342)라고 밝히고 있다. 즉 가와카미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전쟁책임의식은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할 죄의식이고 그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죄의식이 점령군에게 속죄하고 벌을 받을 내용의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의 구석구석까지 점령당해 우리들은 한사람도 남김없이 포로인데 그것을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생략)(전집8, p.441)

패전 직후 다자이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창작했다고 하는 『겨울의 불꽃(冬の花火)』(1946.6)의 일부분으로 GHQ에 대한 작가의 기본인식이 잘 표현된 문장이다. 점령군이라고 하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타자(他者)에 저항하는 것이 지금의 자신들의 ‘진정한 자유주의사상’이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적합한 존재, 즉 일본을 상징하는 ‘천황’이 필요했던 것이다. 실제로 다자이의 작품과 서간 등에서 천황이나 보수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그 실체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의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또한 천황이나 보수를 외치는 행위 그 자체에 의미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점령군에게 거세되는 천황을 지지함으로써 점령군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이 수법은 ‘배급된 자유’를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진정한 자유획득을 표현하고자 한 가와카미와 동일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패전 직후의 작품에서 집중적으로 보였던 천황에 대한 작가의 지지표명은 천황숭배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천황을 규탄하는 시류에 대한 반발의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었다. 즉 새로운 권력의 주체자로서 등장한 GHQ의 통치에 대해 일본역사의 중심이었던 천황을 일본의 상징으로서 지지함으로써 일본인으로서의 주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표현이었던 것이다. 전쟁 중에는 ‘낡은 것’, ‘사기’였던 ‘천황 만세’의 외침이 패전 직후인 당시에 ‘가장 새로운 자유사상’이라는 역설이 작가의 정신세계에서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권력체제로부터 또 다시 자신들의 주체성이 유린당할 수 있다는 시대에 대한 위기감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 5. 새로운 시대의 문화인-윤리적 주체성

전후, 무력을 앞세운 전쟁시대가 끝나고 문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문화’라는 용어는 당시의 사회와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어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표상하는 문화 및 문화주의에 대해 가와카미가 ‘정치의 대용품’인 ‘정치상의 문화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다자이 역

시 당시의 문화인에 대해 반감을 나타낸다.

요즘 소위 말하는 ‘문화인’이 외치는 무슨 무슨 주의, 모두 나에게는 일종의 살롱사상의 냄새 밖에 나지 않는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이에 편승하면 나도 혹은 ‘성공자’가 될지도 모르지만 촌놈인 나는 낮간지러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15년간』, 전집8, p.241)

“신형 편승의 경박 문화에 불쾌감을 느낍니다. 지금이야말로 애국심이 필요한데요.”<sup>29)</sup>라는 말이 서간문에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자이는 당시 유행하는 ‘신문화’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다른 사람을 걱정해주는 것, 다른 사람의 외로움, 쓸쓸함, 괴로움에 민감한 것, 이것이 다정함이고 또한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한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그런 다정한 사람은 항상 부끄러운 표정을 합니다.(생략) 그런 점에 문화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만약 그런 거라면 그것은 약하고 지기마련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sup>30)</sup>

이 서간문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당시의 ‘신문화’는 다자이가 생각하는 ‘문화’의 성격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적어도 다자이에게는 ‘신문화’가 강자인 점령군의 정책에 편승하여 같은 국민들 사이에서 전쟁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분열을 조장하는 문화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자이는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박정하다. 죄 많은 사람이 애정도 깊다”라는 것이 자신의 전후작품들의 중심 주제라고 밝히는데<sup>31)</sup> 이러한 점과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문화인의 성격을 정리해보면 다자이가 후기작품에서 추구한 인물상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즉, ‘다정’하고 ‘부끄러움’을 알며, ‘죄의식’을 느낄 줄 아는, 그래서 ‘남의 아픔에 민감’한 ‘약한 사람’. 이를테면 『비운의 아내』나 『오상』 등에 등장하는 남편들을 말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신과 같은 사람”, “이상할 만큼 조용하고 귀품”이 있는 사람, “기가 약한(「氣の弱い」)”,

29) 전게서, 「山下良三宛(1945/12/29)」 『太宰治全集12』 (1999) p.338

30) 전게서, 「河盛好藏宛(1946/4/30)」 『太宰治全集12』 (1999) p.361

31) 전게서, 「河盛好藏宛(1946/8/22)」 『太宰治全集12』 (1999) p.373

“다정한(「優しい」)”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동시에 이 ‘남편’들은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며 그것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마치 “도둑”처럼 떳떳하지 못한 일상을 보내는 가장실격자들이기도 하다.

1945년 12월 22일, 일본사상 처음으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천황의 기자회견이 열렸고 그 기사는 천황의 신격을 부정하는 내용의 ‘인간선언’으로 1946년 1월 1일에 실린다. 이 기사를 실은 아사히신문 기자는 그때 천황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여성적인 다정함 속에 어디라고 할 것 없이 갖추어진 기품에 접하고 있으면...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순진한 성격이 얼핏 보이는 ‘연약함’조차도 느껴질 정도이다.<sup>32)</sup>

흥미롭게도 다자이의 패전 직후의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남편’들의 성격과 이미지가 겹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문의 기사를 다자이가 보았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적대국인 점령군에 의해 전쟁범죄자의 책임론의 중심에 세워져 신에서 인간으로 추락한 천황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공통적인 시선이 아니었을까? 다자이의 대표작인 『인간실격』의 제목과 작품에 대한 구상이 이 ‘인간선언’의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sup>33)</sup>과 이 작품의 “신과 같은 좋은 아이였다”는 유명한 표현으로도 천황을 연상시키는데 충분하다.

이와 같은 천황에 관련된 표현이 천황숭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전술한 대로인데 그렇다면 다자이는 이러한 천황의 이미지를 포함해 이 시기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남편’들의 인물상, 즉 다자이가 제시한 ‘문화’의 성격이 반영된 인물들을 통해 무엇을 표출하고자 한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대에 대한 다자이의 인식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대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일종의 어이가 없는 느낌이다.”로 시작하는 『고뇌의 연감』은 다자이 자신으로 연상되는 주인공이 소년시절부터 패전 직후에 이르기까지를 회상하며 각각의 시대와 이념의 변화 속에서 겪어야 했던 공감과 반감,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적은 작품이다. 소년시절의 데모크라시부

32) 전게서, 朝日新聞「検証・昭和報道」取材班(2013) p.328

33) 다자이는 堤重久宛(1946/1/25)의 서간에서 천황에 관해 자세히 언급하면서 동시에 『인간실격』의 집필 예정을 밝히고 있다.(전게서, 『太宰治全集12』(1999) p.345)

터 시작해, 사회주의이념, 전쟁이념, 패전 후의 전후사상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렬하게 비판하는 한편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음과 같은 희망을 제시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한다.

완전히 새로운 사조의 대두를 대망한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몽상하는 세계는 프랑스의 모럴리스트들의 감각을 기조로 하여 그 윤리의 의표를 천황에 두고 우리들의 생활은 자급자족의 아나키즘풍의 도원이다.(전집8, p.279)

‘시대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다른 후기 작품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메리크리스마스』의 “형이하학적인 변화는 있지만 형이상학적인 기질에 있어서 이 도시는 여전히 똑같다. 바보는 죽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기분이 든다.”라는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신적인 면에서의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작가가 기대하는 정신적인 변화란 위의 인용문에서 살펴보면 “새로운 사조”의 도래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다름 아닌 “프랑스의 모럴리스트들의 감각을 기조로 하여 그 윤리의 기반을 천황에 두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유토피아를 지탱할 수 있는 사상을 말한다. 패전 직후의 작품 『판도라의 상자』에는 “시대의 권력에 저항하여 약한 사람”을 구하며 자유주의사상을 외치던 17세기의 프랑스의 “리베르탱(リベルタン)”의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HQ라는 강자에 편승하는 사상들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약자로 전략한 “천황”을 외치는 것이 “자유주의사상”이고 그것이 ‘프랑스의 모럴리스트의 감각’이라면 다자이의 인식으로는 17세기의 프랑스의 리베르탱과 모럴리스트는 억압과 속박에 저항하는 자유주의자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천황에 관한 표현은 서간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천황은 윤리의 의표로서 이것을 지지하자, 그리운 대상이 없으면 윤리는 허공에 떠돌아다닐 염려가 있음”<sup>34)</sup> 라고 적혀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지탱하기 위해 천황을 구심점으로 하는 윤리를 구축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자신들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일본역사와 문화의 중심인 천황이라는 초월자에게서 찾자는 것이다. 결국, 프랑스의 리베르탱과 모럴리스트, 그리고 천황은 모두 “일본의 구석구석까지

34) 전게서, 「堤重久宛(1946/1/25)」 『太宰治全集12』 (1999) pp.344-345

점령되어” 일본인 모두가 “포로”가 된 현실에 저항한다는 작가자신의 의지표명을 위한 장치들이며 아울러 외부로부터의 ‘배급’이 필요 없는 자급자족의 유토피아 건설을 대망한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주체성을 문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체성 문제는 패전 직후의 사상계나 문학계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다. 1947년부터 1949년에 걸쳐 우메모토 가쓰미(梅本克己)등의 철학자를 중심으로 주체성 논쟁이 전개되는데 사실은 이에 앞서 1946년 1월에 결성된 「근대문학」의 멤버를 중심으로 문학자들에 의한 주체성 문제가 불거진다. 예를 들어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부터 전향한 히라노 겐(平野謙)은 “나는 제4계급에 대해서는 인연이 없는 중생의 한사람”이라고 표방한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의 「선언하나」를 거론하며 이 선언의 핵심은 “자신의 육체의 불가변성”으로의 회기라며 문학자 자신의 “육체의 자기성찰”, 즉 개인주의적인 주체성의 확립을 주장한다.<sup>35)</sup> 이러한 문학계의 주체성 문제와 철학자인 우메모토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히라코 도모나가(平子友長)의 말을 빌리자면 전자는 “에고이즘을 억제하는 과거 휴머니즘을 비판하고 에고이즘의 복권을 강조”한 것이며 후자인 우메모토의 “윤리적 주체성은 반대로 개인의 에고이즘을 극복하고 역사적 전체로의 자기 부정적 헌신”을 의미하며 이것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윤리적 자유”가 생성된다는 것이다.<sup>36)</sup> 이 둘의 명확한 차이점은 주체성 문제를 ‘개인’에 초점을 두느냐, ‘역사적 전체’에 두느냐와 그 주체성이 에고이즘이나, 윤리적이냐에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다자이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피력한다.

이른바 사회주의의 세상이 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사회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이전 사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윤리에 있어서도 새로운 형태의 개인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긍정하는 것에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개인주의(新しい形の個人主義)』 1947, 전집10, p.384)

35) 平野謙(1946) 「『政治の優位性』とはなにか」 『昭和文学全集』(1989)、第17卷、小学館、p.266

36) 平子友長(2017) 「マルクス主義と主体性論争」 『近代・神話・共同体：台湾与日本』、國際學術工作檢討會、pp.3-4

일본인으로서의 공동체형성과 그것을 지탱해줄 천황을 구심점으로 하는 사상의 확립을 주장하는 다자이의 주체성이 ‘역사적 전체’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GHQ에 편승하여 세력을 키워갔던 좌익 진영을 그토록 비판하며 보수파를 외치던 다자이가 여기서 ‘사회민주주의’를 평가하고 개인의 에고이즘이 아닌 ‘윤리’적인 ‘새로운 형태의 개인주의’를 언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의 여러 작품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인의 에고이즘’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나의 고뇌의 거의 전부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자신을 사랑하듯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난제 하나에 걸려있다고 말해도 좋다. (중략)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도덕은 모두 너희들 자신의, 혹은 너희들 가족의 보전에서 한 발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중략) 마지막으로 묻는다. 약함, 고뇌는 죄인가?  
(『여제아문(如是我聞)』 1948. 전집10, pp.429-430)

여기에서도 당시 문학계에서 문제화 되었던 개인의 에고이즘에 대한 비판과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지향이라는 작가의 시대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다자이는 위의 인용문에 있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자기 확신”은 “가정의 에고이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판을 가하는 동시에 여러 작품들을 통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끊임없이 ‘의’를 추구하는 남편상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작품 『아버지(父)』(1947.4)의 주인공은 3명의 아이의 아버지이면서도 가정을 돌보지 않는 가장실격자이다. “지옥에 있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어딘가에서 의를 위해서 놓고” 있는 주인공 ‘나’는 자신의 마음이 ‘지옥’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알고 있다. 반 병인에게 배급품인 쌀을 훔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저 배급을 위한 줄에 서는 것도 정말 하기 싫은 일이다. (생략)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빛나고 있었다. 배 속에도 아이가 있고 등에도 아이를 업고 또 한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고 자신도 감기에 걸려 한 말이 나 되는 쌀을 옮기는 고생은 그 눈물을 볼 것까지도 없이 나에게도 알 수는 일이었다.(전집9, p.30)

『비욘의 아내』의 남편, 『오상』의 남편, 『앵두(櫻桃)』(1948.5)의 ‘나’, 그리고 자학적이기까지 한 위의 『아버지』의 ‘나’. 이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의’는 ‘배급’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난제’와 관련이 있다. 그 ‘이웃’이란 GHQ에 편승한 ‘신문화’가 놓치고 있는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일’, ‘가장 떳떳하지 못한 것’ 즉,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한 ‘이웃’이며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환기시킴으로써 ‘주체의 윤리적 자유’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다자이문학의 이슈였던 ‘의’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다자이 자신에게 있어서 침략전쟁을 일으켜 희생된 자국의 병사의 죽음과 방탕생활을 함으로써 배급된 자유를 거부하는 작중의 남편들의 ‘의’는 ‘선악의 피안’<sup>37)</sup>, 즉 선악을 초월하는 영역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새로운 시대의 문화인으로서 제시된 인물, 즉 ‘다정’하고 ‘부끄러움’을 알며, ‘죄의식’을 느낄 줄 아는, 그래서 ‘남의 아픔에 민감’한 ‘약한 사람’이란 다름 아닌 개인의 에고이즘을 극복한 윤리적 주체성을 갖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저지른 것은 그대로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혁명이고 뭐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략) 인간의 마음속으로부터의 혁명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혁명(かくめい)』 1948, 전집10, p.398)

나는 지금 패전한 일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만큼 사랑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 ‘포츠담선언’의 약속을 전부 이행하고 그리하여 작지만 아름다운 평화의 독립국이 되도록 아아 나는 목숨이든 뭐든 버리고 기원하고 있습니다.(『답장(返事)』 1946, 전집10, p.370)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도의적 책임의식을 느끼며 개인의 에고이즘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주체의 윤리적 자유’를 획득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인. 이러한 문화인이야말로 마루야마가 지적하는 ‘잘못된 지배에 대한 저항’, ‘정치적 자유에 대한 각성’이 가능한 존재임을 당시의 다자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37) 다자이의 『봄의 마른잎(春の枯葉)』(1946.9)에는 “선악의 피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초월한 영역입니다. 윤리에는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는 것과 그리고 하나 더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라는 문장이 있다.(전게서, 『太宰治全集』 10, p.425)

## 6. 나가기

다자이의 패전 직후의 작품들은 서양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남녀 평등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대국이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군에 의해 즉, 비주체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혼란스러운 과도기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들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작가의 시대인식은 『겨울의 불꽃』의 주인공인 ‘가즈코’가 일본사람 모두가 “꼭두각시(あやつ)人形처럼 괴상한 걸음걸이”를 하고 있다고 한 대사에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전쟁 중 전시체제에 강요당하는 대로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박멸을 외쳤던 국민들이 패전과 동시에 GHQ의 민주화정책에 편승하여 또 다시 ‘배급된 자유’를 비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영혼 없는 꼭두각시 일본인의 자화상을 떠올린 것이다. 다자이가 『고뇌의 연감』 등 여러 작품을 통해 형이상학적인 측면의 변화, 즉 정신의 변화를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정신적인 측면을 구체화한 것이 ‘의’가 없는 전쟁에 내몰린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감과 죄의식이었다. 50년대 후반이후 마루야마 마사오 등에 의해서 지적된 ‘일반국민의 도의적 책임’의 문제를 시대에 민감했던 다자이는 패전 직후에 이미 언급하고 있었고 그것을 여러 작품에 반영하여 문제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자이는 “저널리즘에 편승해서 민주주의의 춤을 출 생각은 없다”<sup>38)</sup>며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인간은 인간에게 정복당하지 않는다. 혹은 인간은 인간을 정복할 수 없다.”<sup>39)</sup>라는 점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겨울의 불꽃』의 주인공이 “일본의 구석구석까지 점령되어” 자신들은 “포로”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령군의 “억압과 속박”에 저항하는 것이 일본인으로서의 자유사상이며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점령군에 의해 거세된 일본의 상징 ‘천황’에 대한 지지선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다자이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연합국군이라고 하는 타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고 전체주의의 전시체제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다자이의 개인주의는 패전 후 자신들의 공동체의 기반인 이웃사랑(隣人愛), 즉 휴머니즘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38) 전게서, 「井伏鱒二宛(1946/1/25)」 『太宰治全集12』 (1999) p.342

39) 전게서, 『太宰治全集』 10, p.425

다만, 다자이가 획득한 윤리적 주체성과 휴머니즘도 결국은 자국의 희생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또 다른 측면, 즉 침략지인 아시아 민족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죄의식은 거론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 【참고문헌】

- 김석근 역(2011) 「전쟁책임론의 맹점」 『전증과 전후사이』, 휴머니스트, p.610  
김석근 역(1997)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한길사, p.28.  
朝日新聞 「検証・昭和報道」 取材班(2013) 『新聞と「昭和」上』、朝日新聞出版、pp.342-344  
奥野健男(1984) 『太宰治論』、新潮社、p.62  
加藤典洋(1997) 『敗戦後論』、筑摩書房、p.120  
佐藤隆之(1993) 「昭和二十年」 『国文学解釈と鑑賞』,至文堂, 1993.6、p.110  
相馬正一(1991) 『増補若き日の太宰治』、津軽書房、p.233  
高木知子(1983) 「太宰治—抵抗か屈服か」 『戦争と文学者』三一書房、p.183  
『太宰治全集12』(1999)、「小田巖夫宛(1946/1/28)」、筑摩書房、p.346  
都築久義(2000) 「戦時下の太宰治—「十二月八日」をめぐって—」 『太宰治研究』8、和泉書院、p.2  
中野重治(1945) 「冬に入る」 『戦後日本思想大系1、戦後思想の出発』(1971)、筑摩書房、p.83  
平子友長(2017) 「マルクス主義と主体性論争」 『近代・神話・共同体：台湾与日本』、国際学術  
工作検討会、pp.3-4  
平野謙(1946) 「『政治の優位性』とはなにか」 『昭和文学全集』(1989)、第17巻、小学館、p.266  
山崎正純(2002.12) 「『斜陽』—敗戦後思想と〈革命〉のエスキス」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  
学灯社、pp.90-91

논문 투고 일자 : 2018. 06. 22.
논문 심사 일자 : 2018. 07.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8. 03.

< 要 旨 >

文学作品を通してみた敗戦後の日本の社会・文化像  
—太宰治の後期作品を中心に—

金京淑

本稿は、太宰治の戦後の作品に表象されている日本の社会・文化像と日本人の意識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太宰の敗戦直後の作品は西洋の民主主義、自由主義、個人主義という新たなパラダイムがGHQによって、即ち非主体的に構築されていく混沌した過渡期の社会を背景にしている。太宰は、軍部に取って代った新たな権力の主体者として登場したGHQの統治に対し、日本の文化・歴史の中心である天皇を、日本の象徴として支持表明することにより、日本人としての主体性を表現しようとしたと考えられる。また、同時期の作品の主人公たちは、自分たちの過ちを認めつつ、それなりの道義的な責任意識を持ち、個人のエゴイズムではなく、日本という共同体に献身することによって「主体の倫理的な自由」を獲得しようとした。太宰はこのような人物像を新しい時代に相応しい文化人として提示していたのだが、それは、こうした文化人こそ「政治的自由の目醒め」の可能な存在だという認識があったからであろう。

A Study of the Sociocultural State of Japan after the Lost War  
—Focusing on the later works of Osamu Dazai—

Kim, Kyung-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ocultural state of Japan and Japanese people's consciousness after the lost war, using the literary works of Japanese representative writer Osamu Dazai. Dazai's works of the time describe a chaotic society, in which the new paradigm of western democracy, liberalism, and individualism was dependently formed by General Headquarters (GHQ). Against the new power of GHQ, Dazai tried to express the identity of Japan by supporting the Emperor as the essence and symbol of Japanese history. In addition, the characters appearing in Dazai's works tend to recognize their mistakes, have a moral sense of responsibility, and contribute to the whole of Japan without egoism, thereby obtaining "ethical freedom." Dazai considered these characters to be cultured men who were appropriate for the new age, because he believed them to be capable of "realizing political freedom," as pointed out by Masao Maruyama.